

패션비즈니스 제22권 4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2,
No. 4:145-159, Sept. 2018
[https://doi.org/
10.12940/jfb.2018.22.4.145](https://doi.org/10.12940/jfb.2018.22.4.145)

Corresponding author

In-Hee Lee
Tel : +82-2-940-7817
Fax : +82-2-940-7817
E-mail : buee79@naver.com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정체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신수정* · 이인희†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areer Interrupted Women with Experienced on Beauty Education

Su-Jeong Shin* · In-Hee Lee†

*Dept. of Beauty Arts, Graduate School, Seokyeong University, Korea
Dept. of Beauty therapy & Make up, College of Beauty Arts, Seokyeong University, Korea

Keywords

beauty education,
career-interrupted women,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미용교육, 경력단절여성,
진로정체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women who have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 Furthermore, the aim was to seek effective measures for making a career decision for the successful re-employment of women with a break in their career. From March 3rd to April 2nd, 2018,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380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with age between 30-50 years and with work experience of more than six months. The selected subjects had received 1-9 months of beauty education from various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beauty academies, and women's center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A total of 36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SPSS Program for data analysis, Cronbach's α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was apparent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areer identity and social support could play important roles in creating a relation with new career decisions for re-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career preparation in women with career interruption.

본 연구는 2018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저 출산·고령화 사회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주 노동 연령대의 인구감소와 전체 노동 생산성 감소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인력의 활용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가적 상황과 여성의 자아 실현 욕구 증대 등의 여성사회참여 의지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Eun & Kim, 2011). 특히,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여성의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Moon, 2013).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한 개인으로서는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경제적 독립 및 자아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우수한 여성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Kang, 2013). 또한 고령화시대에 있어 제 2의 직업선택은 다가올 미래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로 볼 수 있다(Kim, Im & Choi, 201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유망도전 직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개정연구 보고서에서는 피부관리사, 헤어디자이너 등을 선정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가 높은 직업으로는 피부관리사,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순으로 나타났다(Jeong, 2013). 미용직종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사회 수요 맞춤형의 기능 지향적인 직업군이며(Kang, 2014)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교육의 만족도가 높고, 시간선택이 용이하며 프리랜서나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류로 인한 화장품과 미용관련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용교육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우수한 직업교육이라 할 수 있다(H. Jung, 2015).

재취업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진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력변화를 앞두고 갈등, 회피 등 진로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며 이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 미결정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Jeon, 2010). Betz and Vuyten(1997)의 연구에서 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이 진로결정과 실제적인 진로 준비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Kim & Kim, 2009)와 Lim(2017)의 연구에서도 진로성숙, 진로발달,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진로관련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진로 정체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줄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진로정체성과 그들이 자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취업진로상담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미용교육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상담, 사후관리 등의 다양한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Kim & Lee, 201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5819개 훈련과정 중 이·미용 및 관련 미용교육과정은 321개가 운영되어 전체 훈련과정의 6%를 차지하고 있다(M. Jung, 2015).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위하여 미용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이유는 미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여성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들의 기술습득이 용이하며 경력이 쌓이면 창업이나 프리랜서가 가능하여(Kim & Shin, 2014),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있어 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Chung, 2009). 또한 우리나라의 미용 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내수 기반 확충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Huh, 2013), 이러한 흐름과 함께 전문적인 미용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여성인력 고용증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Cha & Hong, 2011).

2. 진로정체성과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로 Taylor and Popma(199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적다고 보고한 학

생은 확신이 많다는 학생보다 진로미결정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Harren의 발달적 접근 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과정, 개인적인 특성, 당면한 발달과업, 의사결정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진로결정과정과 진로결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인들로 이해할 수 있다(Choi, 2015). Shin(2015)의 연구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Lee(2015)의 연구에서는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로정체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정체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나의 진로는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선호와 행태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진로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직무만족 및 직업적 성공요인과 연결되며 사회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자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Ku(2018), J. Kim and H. Kim(2016)는 연구결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직업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취업 장벽이 높아지면 진로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혀진 연구결과(Kim, 2015)와 같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진로상담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자각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3. 용어의 정의

1) 경력단절여성

여성에게 경력단절은 생애주기에 따라 남성과 다르게 여성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보다는 가족형성과 관련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집중적인 자녀 양육으로부터 탈출하는 시기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까지 여성들이 독특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정한 시기를 말하며(Jeon, 2012), 경력단절여성에게 재취업이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현상을 의미한다(Koo & Hong, 2005).

2) 진로정체성

진로정체성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또는 생각”을 의미한다(Kim, Son & Park, 2017).

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정서적 관심, 도움, 환경에 대한 정보 및 평가를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이며 이를 기능적 측면에서 정서적 관심,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House, 1981).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Jeong & Park, 2009).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진로정체성과 사회적지지 각각의 하위차원을 규명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

셋째,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정체성과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정체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3월 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에 협조할 것을 수락한 서울·경기 지역의 직업훈련전문학교, 미용학원, 여성 센터 등에서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미용교육을 1-9개월 이상 받고 있는 30-50대이며, 6개월 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380부를 배포하고, 그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한 총 361부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이해, 진로 탐색, 진로몰입, 진로유연성 등으로 총 18문항을 구성하였고 Porfeli, Lee, Vomdrack, and Weigold(2011)가 개발하고 Lee, Chung, and Lee(2014)에 의해 타당화 된 한국어판 VISA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등으로 총 20문항을 구성하였고 Douglas, Suurmeijer, Briancon, Moum, Krol, Bjelle, Sandeman and Ven den Heuvel(1996)과 Ko(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능력, 직업정보수집, 미래계획 등 총 18문항을 구성하였고 Betz, Klein and Taylor(1996)가 개발한 CO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을 기본으로 한 Lee(2010), Hong(2012), Ahn, Chung and Lee(2014), Choi and Lee(201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정체성,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34세 이하 87명(24.1%), 35-39세 86명(23.8%), 40-44세 104명(28.8%), 45세 이상 84명(23.3%)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64명(45.4%), 전문대 졸업 117명(32.4%), 4년제 대학 졸업 70명(19.4%), 대학원 이상 10명(2.8%)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349명을 대상으로 자녀수를 분석한 결과 1명 122명(35.0%), 2명 176명(50.4%), 3명 이상 51명(14.6%)으로, 막내학령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 이전 135명(38.7%), 초등학교 75명(21.5%), 중학생 71명(20.3%), 고등학생 38명(10.9%), 고등학교 졸업 이상 30명(8.6%)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기간은 1-2년 190명(52.6%), 3-4년 51명(14.1%), 5-6년 27명(7.5%), 7-8년 33명(9.1%), 9년 이상 60명(16.6%)으로 나타났다. 미용분야는 피부 132명(36.6%), 네일 116명(32.1%), 헤어 96명(26.6%), 메이크업 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교육기간은 1-3개월 미만 101명(28.0%), 3-6월 미만 96명(26.6%), 6-9개월 미만 96명(26.6%), 9개월 이상 68명(18.8%)으로 나타났다. 직종선택이유는 자신의 적성 및 흥미 150명(41.6%), 장래성 135명(37.4%), 주변의 권유 63명(17.5%), 이전 직장의 경험 13명(3.6%)으로 나타났고, 취업목적은 자기개발 138명(38.2%), 생활여유자금 90명(24.9%), 노후대비 64명(17.7%), 자녀의 사교육비 39명(10.8%), 생계비 30명(8.3%)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1) 진로정체성

진로정체성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아이겐 값(Eigen Value)은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는데 2개의 문항에 제거,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총 4개 요인의 누적분산설명력은 70.865%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진로유연성'이 18.533%, '자기이해'가 17.595%, '진로몰입'이 17.430%, '진로탐색'이 17.307%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64 이상으로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도 또한 .84 이상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아이겐 값(Eigen Value)은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는데 1개의 문항에 제거, 총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N	%
Age	30-34	87	24.1
	35-39	86	23.8
	40-44	104	28.8
	More than 45	84	23.3
Level of education	High-school graduate	164	45.4
	College graduate	117	32.4
	University graduate	70	19.4
	Over the grad school	10	2.8
Number of children	1	122	35.0
	2	176	50.4
	More than 3	51	14.6
Grade of the youngest child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135	38.7
	Elementary school student	75	21.5
	Middle school student	71	20.3
	High school student	38	10.9
	More than high school student	30	8.6
Career interrupted period	1 to 2 years	190	52.6
	3 to 4 years	51	14.1
	5 to 6 years	27	7.5
	7 to 8 years	33	9.1
	More than 9 years	60	16.6
Major field	Hair	96	26.6
	Skin care	132	36.6
	Nail	116	32.1
	Make-up	2	.6
	Etc.	15	4.2
Training period	1 to 3 months	101	28.0
	3 to 6 months	96	26.6
	6 to 9 months	96	26.6
	9 to 12 months	68	18.8
The Reasons for deciding the type of occupation to get a job	Own aptitude and interest	150	41.6
	Experience in the previous job	13	3.6
	People's advice	63	17.5
	Future	135	37.4
Purpose of re-employment	Self-development	138	38.2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children	39	10.8
	Excess cash for life	90	24.9
	Aged preparation	64	17.7
	Living expenses	30	8.3
Desirable employment form	Own shop	137	35.2
	Franchise big stores	88	24.4
	Private foundation	112	31.0
	Shop-in-shop foundation	34	9.4
Total		361	10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areer Identity

Division	Ingredient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areer Flexibility	Self Knowledge	Career Commitment	Career Exploration
17. My pursuit of a career may change in the future.	.915	.063	.137	-.012
18. My career choices may differ from what I now expect.	.894	.102	.104	.014
16. I can change my career goals..	.863	.043	.183	.038
15. My work interests may change in the future.	.659	.060	.085	.289
4. I know what job I want.	.056	.807	.158	.251
2. I am sure of myself in various areas of life.	.105	.783	.111	.284
3. I am confident in the whole matter of decisions about career path.	.080	.757	.102	.364
5. I'm a man worth believing.	.044	.732	.231	.091
12. I chose a career path that fits my values.	.089	.132	.826	.230
14. My career will help me achieve my personal goals.	.244	.117	.764	.232
13. I won't change my chosen career because of someone else.	.148	.111	.760	.209
11. I will not change my chosen career because of others.	.091	.252	.743	.116
8. Find out what I can do to increase my chances of entering my chosen career.	.067	.245	.313	.807
7. I find out as much as I can what specific education requirements I find most interesting.	.095	.280	.162	.784
9. I think about every aspect of my work.	.050	.191	.277	.744
6. I look for various jobs that I would like.	.114	.377	.147	.645
Eigenvalue	2.965	2.815	2.789	2.769
Distributed description(%)	18.533	17.595	17.430	17.307
Cumulative explanation(%)	18.533	36.128	53.558	70.865
Reliability	.870	.848	.841	.853

KMO=.897, Bartlett's test $\chi^2=3497.866$ (df=120, p=.000)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총 4개 요인의 누적분산설명력은 75.323%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가 21.545%, '평가적 지지'가 20.677%, '물질적 지지'가 17.009%, '정보적 지지'가 16.092%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66 이상으로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도 또한 .86 이상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아이겐 값(Eigen Value)은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는데 1개의 문항에 제거,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총 5개 요인의 누적분산설명력은 74.895%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목표설정'이 17.189%, '문제해결능력'이 16.807%, '자기평가'가 14.421%, '직업정보수집수집'가 14.122%, '미래계획'이 12.357%로 나타났다. 또한 5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71 이상으로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도 또한 .76 이상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ocial Support

Division	Ingredient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Emotional Support	Appraisal Support	Tangible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8. They always listen to my problems with interest.	.849	.196	.211	.147
7. They give me the right advice to understand reality and to lead a social life.	.742	.138	.291	.215
6. They provide information to help me identify the cause of the problem.	.718	.215	.120	.305
11. They feel close together.	.707	.384	.242	.192
10. I can depend and trust them.	.680	.320	.194	.279
9. They try to understand my feelings and make me feel better when I feel bad.	.661	.331	.134	.272
17. They acknowledge that I am worthy.	.327	.803	.255	.157
20. They admit my work to take pride in what I'm doing.	.246	.794	.283	.153
16. They have a fair assessment of my conduct.	.171	.755	.276	.292
18. They respect me personally.	.347	.752	.259	.232
19. They respect and accept my opinion.	.325	.752	.358	.171
12. They let you use materials and materials related to class when you need them.	.256	.281	.791	.194
14. They ask me if I have any difficulties. I try to help.	.153	.290	.777	.231
15. They try to help me with anything.	.258	.324	.772	.202
13. They try to help when they have financial difficulties.	.247	.272	.757	.235
2. They explain well what I don't know (e.g., class content, career, etc.).	.182	.152	.174	.820
4. They advise me to make a rational decision when I am hesitant to make it.	.357	.176	.174	.761
5. They provide information to help me identify the cause of the problem.	.249	.158	.194	.733
1. They help me solve problems when I'm in a difficult situation.	.213	.263	.246	.717
Eigenvalue	4.094	3.929	3.232	3.058
Distributed description(%)	21.545	20.677	17.009	16.092
Cumulative explanation(%)	21.545	42.222	59.231	75.323
Reliability	.911	.935	.908	.863

3. 각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진로정체성의 하위요인별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유연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능력, 직업정보수집, 미래계획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별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능력, 직업정보수집, 미래계획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진로정체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온 변인은 문제해결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문제나 행동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해결 할 가능성이 높아질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 5개 변인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직업정보수집의 상관계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다른 하위변인인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능력, 미래계획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다른 하위변인보다 직업정보수집과 목표설정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Lee(201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한다.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ivision	Ingredient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Setting Goals	Problem Solving Ability	Self Evaluation	Collecting Job Information	Future Plan
6. I can see the trends of vocational education over the next ten years.	.821	.124	.198	.134	.012
7. I can find out about institutions or companies that are related to jobs that are suitable for my aptitude or ability.	.803	.171	.210	.065	.099
5. I can make plans for the next five years.	.793	.167	.234	.145	.032
8. I can do the necessary procedures for job interviews well.	.771	.192	.092	.221	.093
11. I can prioritize different values related to job choice.	.101	.875	.064	.144	.088
9. I can write my resume well.	.250	.830	.070	.067	.069
10. I can have a chance to meet and talk to the people I'm currently working on in the field of interest.	.221	.764	.143	-.011	.213
12. In order to achieve my career goals, I can distinguish which sacrifices I can afford and which are difficult.	.092	.714	.096	.275	.220
3. I can see what my ideal job is.	.210	.107	.866	.019	.013
4. I can choose which career I am interested in.	.215	.111	.855	.136	-.006
2. I can accurately assess my ability.	.196	.084	.847	.009	.087
13. I have a choice of jobs to choose from in mind.	.164	.132	.063	.860	.204
14. I can find information about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train the professionalism required in my chosen career.	.224	.026	-.027	.853	.167
15. I can find information about the jobs I am interested in on the Internet.	.104	.236	.134	.797	.143
18. If it is impossible to choose a new career path or a field for the first time, you can think of alternatives to another path..	.077	.068	.079	.189	.850
17. I can see the average income and salary of the job I am thinking about.	-.036	.193	.133	.118	.794
16. I can change my chosen career if I'm not satisfied with it.	.166	.231	-.147	.189	.723
Eigenvalue	2.922	2.857	2.452	2.401	2.101
Distributed description(%)	17.189	16.807	14.421	14.122	12.357
Cumulative explanation(%)	17.189	33.996	48.416	62.539	74.895
Reliability	.871	.860	.872	.860	.766

KMO=.897, Bartlett's test $\chi^2=3497.866$ (df=120, p=.000)

Table 5. Verification of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Division	Career 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self-knowledge	1												
career exploration	.623***	1											
career commitment	.428***	.535***	1										
career flexibility	.216***	.247***	.346***	1									
informational support	.222***	.160**	.302***	.204***	1								
emotional support	.288***	.189***	.370***	.244***	.636***	1							
tangible support	.233***	.137**	.219***	.102*	.569***	.606***	1						
appraisal support	.285***	.205***	.322***	.268***	.563***	.683***	.697***	1					
self evaluation	.162**	.190***	.265***	.196***	.190***	.257***	.370***	.399***	1				
setting goals	.329***	.340***	.335***	.198***	.171**	.243***	.178**	.206***	.455***	1			
problem solving ability	.288***	.381***	.365***	.073*	.306***	.230***	.149**	.200***	.276***	.426***	1		
collecting job information	.340***	.281***	.301***	.232***	.335***	.421***	.231***	.270***	.186***	.382***	.350***	1	
future plan	.290***	.346***	.294***	.140**	.266***	.279***	.171**	.231***	.111*	.219***	.402***	.419** *	1

* $p < .05$, ** $p < .01$, *** $p < .001$

4. 각 변수 간 영향력 분석

1) 진로정체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정체성의 하위요인들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자기평가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5%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312$,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진로몰입($\beta = .191$, $p < .01$), 진로유연성($\beta = .113$, $p < .05$)이 자기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몰입, 진로유연성이 높을수록 자기평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진로에 대하여 몰입을 하고 있고 진로유연성이 있는 경우 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목표설정에서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8.036$,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진로몰입($\beta = .172$, $p < .01$), 자기이해($\beta = .157$, $p < .05$), 진로탐색($\beta = .132$, $p < .05$)이 목표설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몰입, 자기이해, 진로탐색이 높을수록 목표설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진로에 탐색과 몰입을 하고 있고 자신의 심신, 가치관 및 자기 행동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해가 높아질수록 힘든 상황에서도 진로목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에서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0.708$,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진로몰입($\beta = .243$, $p < .001$), 진로탐색($\beta = .238$, $p < .001$)이 문제해결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Table 6. Career Identity Influ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pendent V.	Independent V.	B	β	t	p
Self evaluation	(a constant)	2.093	.248		8.452
	Self-knowledge	.031	.068	.030	.455
	career exploration	.046	.077	.042	.597
	career commitment	.191	.063	.191	3.044**
	career flexibility	.094	.045	.113	2.084*
	R ² = .085, Adj. R ² = .075, F=8.312***, p-value= .000				
Setting goals	(a constant)	1.607	.216		7.457
	Self-knowledge	.149	.059	.157	2.514*
	career exploration	.133	.067	.132	1.982*
	career commitment	.157	.055	.172	2.885**
	career flexibility	.054	.039	.071	1.381
	R ² = .169, Adj. R ² = .159, F=18.036***, p-value= .000				
Problem solving ability	(a constant)	1.952	.196		9.937
	Self-knowledge	.046	.054	.053	.855
	career exploration	.222	.061	.238	3.613***
	career commitment	.205	.050	.243	4.117***
	career flexibility	-.056	.036	-.081	-1.587
	R ² = .189, Adj. R ² = .180, F=20.708***, p-value= .000				
Collecting job information	(a constant)	1.819	.227		8.032
	Self-knowledge	.233	.062	.236	3.752***
	career exploration	.028	.071	.027	.398
	career commitment	.136	.057	.142	2.370*
	career flexibility	.099	.041	.125	2.408*
	R ² = .160, Adj. R ² = .150, F=16.900***, p-value= .000				
Future plan	(a constant)	2.363	.176		13.443
	Self-knowledge	.075	.048	.099	1.555
	career exploration	.168	.055	.208	3.069**
	career commitment	.098	.044	.133	2.201*
	career flexibility	.013	.032	.021	.407
	R ² = .143, Adj. R ² = .133, F=14.847***, p-value= .000				

* $p < .05$, ** $p < .01$, *** $p < .001$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몰입, 진로탐색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진로에 탐색과 몰입을 하고 있을수록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직업에 대해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정보수집에 있어 먼저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16.900$,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자기이해($\beta=.236$, $p < .001$), 진로몰입($\beta=.142$, $p < .05$), 진로유연성($\beta=.125$, $p < .05$)이 직업정보수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자기이해, 진로몰입, 진로유연성이 높을수록 직업정보수집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진로에 탐색과 몰입을 하고 있고 자신의 심신, 가치관 및 자기 행동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해가 높아질수록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추구욕구

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계획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4.847$, $p<.001$). 독립변수별로는 진로탐색($\beta=.208$, $p<.01$), 진로몰입($\beta=.133$, $p<.05$)이 미래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탐색, 진로몰입이 높을수록 미래계획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몰입이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선택,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속적인 계획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Kim(2013)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에서 진로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즉, 경력단절여성 스스로가 진로에 대해 몰입할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자기평가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9.933$, $p<.001$). 독립변수별로는 평가적지지($\beta=.324$, $p<.001$), 물질적지지($\beta=.220$, $p<.01$)가 자기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평가적, 물질적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평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는 경향이 높아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목표설정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5.930$, $p<.001$). 독립변수별로는 정서적지지($\beta=.184$, $p<.05$)가 목표설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정서적지지가 높을수록 목표설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향이 높을수록 힘든 상황에서도 진로목표를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0%이고, 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9.91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정보적지지($\beta=.284$, $p<.001$)가 문제해결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정서적지지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에 관한 정보지지가 높을수록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직업정보수집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0.709$, $p<.001$). 독립변수별로는 정서적지지($\beta=.393$, $p<.001$), 정보적지지($\beta=.140$, $p<.05$)가 직업정보수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정서적, 정보적지지가 높을수록 직업정보수집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받는 느낌을 받는 경향이 높을수록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추구욕구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계획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5%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9.299$, $p<.001$). 독립변수별로는 정서적지지($\beta=.173$, $p<.05$), 정보적지지($\beta=.156$, $p<.05$)가 미래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정서적, 정보적지지가 높을수록 미래계획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ong and Hong(2010)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준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단절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활동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 사회적지지 제공자인 부부, 부모, 친구, 동료 등 주변 환경의 지지가 심리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미치고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탐색이나 준비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eo, 2014).

V. 결론

본 연구는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정체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 변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Table 7. Social Support Influ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pendent V.	Independent V.	B	β	t	p
Self evaluation	(a constant)	2.145	.203		10.575
	informational support	-.098	.069	-.093	-1.426
	emotional support	-.038	.073	-.038	-.521
	tangible support	.186	.060	.220	3.115**
	appraisal support	.297	.069	.324	4.283***
	R ² = .183, Adj. R ² = .174, F=19.933***, p-value= .000				
Setting goals	(a constant)	2.531	.198		12.766
	informational support	.007	.067	.007	.102
	emotional support	.168	.071	.184	2.360*
	tangible support	.014	.058	.018	.238
	appraisal support	.053	.068	.064	.788
	R ² = .062, Adj. R ² = .052, F=5.930***, p-value= .000				
Problem solving ability	(a constant)	2.503	.179		13.964
	informational support	.252	.061	.284	4.146***
	emotional support	.054	.064	.064	.839
	tangible support	-.068	.053	-.095	-1.286
	appraisal support	.048	.061	.063	.791
	R ² = .100, Adj. R ² = .090, F=9.914***, p-value= .000				
Collecting job information	(a constant)	2.009	.193		10.416
	informational support	.141	.065	.140	2.156*
	emotional support	.374	.069	.393	5.404***
	tangible support	-.052	.057	-.065	-.915
	appraisal support	-.028	.066	-.032	-.428
	R ² = .189, Adj. R ² = .180, F=20.709***, p-value= .000				
Future plan	(a constant)	2.758	.157		17.616
	informational support	.120	.053	.156	2.263*
	emotional support	.126	.056	.173	2.249*
	tangible support	-.048	.046	-.078	-1.047
	appraisal support	.053	.053	.080	1.000
	R ² = .095, Adj. R ² = .084, F=9.299***, p-value= .000				

* $p < .05$, ** $p < .01$, *** $p < .001$

2018년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직업훈련전문학교, 미용학원, 여성 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하고 총 361개의 표본을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데이터 분석은 Cronbach's alpha,

탐색적 요인 분석, 상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정체성과 사회적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정체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하위요인 중 진로몰입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에서 정보적지지와 정서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위해 미용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명확한 인지인 진로정체성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미용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는 취업 상담 및 진로 지도에 있어 개인적인 맞춤형 진단과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격려와 지지를 지역사회에서는 경력단절여성지원 프로그램 등이 폭넓게 개발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점을 전국으로 연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는 데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변인들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nh, M., Chung, S., & Lee, M. (2014). Effects of fashion related work experience program in middle schools: focusing on self-efficacy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career,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5), 134-143. doi:10.12940/jfb.2014.18.5.134
- Betz, N., Klein, K. L., & Taylor, K.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etz, N., & Vuyten,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Journal of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doi:10.1002/j.2161-0045.1997.tb01004.x
- Cha, E., & Hong, S. (2011). Comparison of beautician national licensing system in germany,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Journal of Aesthetics and Cosmetics Society*, 9(3), 141-151.
- Choi, S., & Lee, I. (2017). A study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ourse maturity according to followership types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1(5), 122-135. doi:10.12940/jfb.2017.21.5.122
- Choi, W. (2015).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level, future time perspective, self-contro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H. (2009). *An investigation into criterions of women's decent jobs : focused on employment preferences of career interrupt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Douglas, D., Suurmeijer, T., Briancon, S., Moum, T., Krol, B., Bjelle, A., Sandeman, R., & Van Den Heuvel W. (1996). An international study on measuring social suppor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43(9), 1389-1397. doi:10.1016/0277-9536(96)00036-6
- Eun, H., & Kim, C. (2011). Investigation of career adaptability for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s reemployment with the perception of successfully reemployed wom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2), 651-671. doi:10.15703/kjc.12.2.201104.651
- Hong, S. (2012). The effect of understanding their major and career self-efficacy on career indecision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 focus on the community college students in gyeongido.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5), 39-56. doi:10.12940/jfb.2012.16.5.39
- House, J.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Boston,

- US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 Huh, E. (2013). *A study on reinforcing the eligibility for national certificate for (Skin)aesthetician : focusing on the subjects and related mandatory education hou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H. (2010).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of women who returned to work after career breaks: a grounded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Jeon, I. (2012). *Factors related to the desire and the behavior of married, "career-interrupted" women to be re-employ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Jeong, C. (2013). Career break women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revised research report.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114.
- Jeong, H., & Park, O. (2009). Effect of self efficacy in college students majored in beauty art on the career maturity lev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5(4), 41-42.
- Jung, M. (2015).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statu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2015). *The reality of cosmetology education & employment based o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count system for career-discontinu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J. (2013). *Women's vocational education participants learning experience in the course of employ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S. (2014). Study on analysis of factors of skin care employees' importance and necessity on work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0(6), 1076-1082.
- Kim, I., Son, M., & Park, H. (2017). The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8(2), 302-312. doi:10.5762/KAIS.2017.18.2.302
- Kim, J., & Kim, H. (2016).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2), 741-766.
- Kim, S. (2015). *The effects of cosmetology education for the reemployment wome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 Lee, I. (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eauty Education on Re-entry of the Career Interrupted Women.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21(4), 671-678. doi:10.5762/KAIS.2015.16.7.4432
- Kim, S., & Shin, S. (2014). Analysis on female's career preparation in beauty treatment area for re-employment.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8(2), 89-99.
- Kim, S., Im, Y., & Choi, M. (2012). 30~40 women's The concern in beauty and the preference of the beauty in the secondary career cho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8(2), 452-464.
- Kim, S., & Kim, C. (2009).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choices : a literature review in Korea. *Journal of Korean Counseling*, 10(3), 1573-1591. doi:10.15703/kjc.10.3.200909.1573
- Kim, Y. (2013). *Comparative study of career variables among self-construal latent classe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o, T. (2008).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 Koo, M., & Hong, S. (2005). Married women's return to the workforce : findings from the participants in a reemployment train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153-167.

- Ku, K. (2018).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job search behavior of career-interrupted wom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B., Chung, J., & Lee, J. (2014). Validation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in Korean (VISA-K). *Journal of Korean Counseling, 15*(3), 1163-1181. doi:10.15703/kjc.15.3.201406.1163
- Lee, H. (2010). *The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 of women whose career were interrupted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2015). *effects of dance major's job identity-focused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related percep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2016).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and teachers' social support on middle school student'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Lim, S. (2017).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 Contents, 17*(9), 575-586. doi:10.5392/JKCA.2017.17.09.575
- Moon, R. (2013). *A study on the reemployment process of the career-interrupted women employing the grounded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 Porfeli, E., Lee, B., Vomdrack, F., & Weigold, I.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4), 853-871. doi:10.1016/j.adolescence.2011.02.001
- Seo, K. (2014).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 ability: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J. (2015).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hope in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Pusan, Korea.
- Song, H., & Hong, H. (2010).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Counseling, 11*(3), 1325-1350. doi:10.15703/kjc.11.3.201009.1325
- Taylor, K.,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use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10), 17-31. doi:10.1016/0001-8791(90)90004-1

Received (June 13, 2018)

Revised (July 17, 2018; August 27, 2018)

Accepted (September 8, 2018)